

맨시티 7월말 방한...시티풋볼그룹, K리그 투자 신호탄

(아부다비왕족 만수르의 맨시티 지주회사)

대회 공식명칭 '빅센 컵'...수원과 대결 희망 시티풋볼그룹, 최근 아시아 시장 적극 투자 한국축구 실태 확인·클럽인수 등 투자 예고

**본지
단독**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맨체스터시티가 올 여름 한국을 방문한다.

축구계 소식통은 21일 "맨체스터시티가 2016~2017시즌을 앞둔 프리시즌 기간인 7월 말 방한해 K리그의 한 팀과 단판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스폰서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맨체스터시티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전 상대로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타이틀스폰서는 2015~2016시즌부터 맨체스터 시티를 후원했고 복수의 K리그 구단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어회사 빅센으로, 대회 공식명칭도 '빅센 컵'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축구계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맨체스터시티의 방한 시기와 목적이다. 맨체스터시티의 지주회사이자 뉴욕시티(미국 MLS), 뉘버른시티(호주 A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 J리그)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티풋볼그룹(CFBG)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족 셰이크 만수르의 투자회사 아부다비 유니타이트

가 2008년 투자·인수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일찌감치 아시아시장 확대를 선언한 시티풋볼그룹은 호주, 일본에 이어 특히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 연고를 둔 슈퍼리그 클럽 인수에도 적극적 자세를 취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국빈방문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차이나미디 어캐피탈(CMC)과 시탁캐피탈(CITIC)의 컨소시엄이 기반이 된 중국 투자자본에 그룹 지분의 13%(4억달러·약 4600억원) 가량을 매각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시티풋볼그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호성적을 올리며 동아시아 전통의 강호다운 위상을 곳곳에 지켜온 K리그 시장 개척에도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축구 관계자는 "시티풋볼그룹이 일본, 중국 등과 오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온 한국축구 상황을 꾸준히 체크해왔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시티풋볼그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국내축구시장의 실태를 확인한 뒤 클럽인수 등을 포함한 K리그에 대한 다양한 투자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

정규리그 26라운드를 마친 현재 14승5무7패(승점 47)로 4위에 올라있는 맨체스터시티는 다음 시즌부터 스페인 출신 펠 과르디올라(현 독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시티가 7월 방한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맨체스터시티의 지주회사인 시티풋볼그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K리그 시장 개척 및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AP뉴시스

수원삼성 프랜차이즈들의 귀환... "잘 커서 돌아왔다"

사커 토크

첼린지 임대 복귀 김중우-이종성

김: 수원FC서 득기 품고 저돌적 플레이 올시즌 20경기 이상 출전·베스트11 목표

이: 대구FC서 30경기 소화 자신감 쑥쑥 빠른 템포 맞춰 최대한 많은 경기 펼 것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의 올 겨울 이적시장은 우울하다. 모기업이 바뀐 뒤 몸집 줄이기가 4년째 이어지면서 전력보강이 수월치 않았다. 주축 여럿이 다른 팀으로 이적한 반면, 이들을 대체할 만한 보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몇몇 베테랑들과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가슴 아픈 팬들과 허탈한 구단 식구들에게 위안을 줄 정도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이 더욱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수원이다. 김중우(23)와 이종성(24) 등 잘 성장하고 친정으로 되돌아온 이들도 힘을 보탠다. 둘은 지난 시즌까지 각각 첼린지(2부리그) 수원FC와 대구FC에서 임대선수로 맹활약했다. 공교롭게도 클래식 승격을 놓고 두 팀이 플레이오프(PO)에서 자웅을 겨뤘고, 수원FC가 웃었다. 이종성은 가장 중요한 이 경기에 경고누적으로 결장해 김중우의 폭발적인 활약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제는 같은 팀, 수원의 푸른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매단고 출신의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만큼 의지도 강하다. "수원 엠블럼의 무게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여기에 걸맞은 선수



지난 시즌 K리그 첼린지 대구FC와 수원FC로 각각 임대됐다 김중우의 친정팀 수원 삼성으로 복귀한 이종성(왼쪽)과 김중우는 'K리그 명문' 수원 엠블럼의 가치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남정현 기자

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프랜차이즈의 귀환이다.

김중우(이하 김)=처음 입단했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첼린지 임대를 다녀왔다. 다행히 선택이 주효했다. 수원FC에서 많이 뛰었고(34경기), 나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간 익힌 것들을 펼치고 싶다.

이종성(이하 이)=어느덧 프로 6년차인데, 초반 4시즌 동안 5경기밖에 못 뛰었다. 경기가 너무 뛰고 싶어 임대 요청을 했다. 이제 다시 출발선인데, 제대로 도전하겠다.

-복귀한 뒤 어떤 생각이 드나.

김=물론 뛰는 무대의 수준이 다르다. 패스와 볼 컨트롤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이가 있다. 이=첼린지도 사실 만만치 않은 무대였다. 다만 베테랑들이 결정적인 차이이다. 그런 좋은

선배들이 (복귀한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떻게 채웠는지.

김=적극성, 수비기량, 활동량 등 전부 부족했다. 솔직히 수원FC 임대 초기에도 많이 뛰지 못했다. 내가 변해야 했다. 마음을 고쳐먹자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몸싸움을 싫어하던 내가 어느새 저돌적으로 부딪히는 플레이를 종종 펼치게 됐다.

이=경기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주 지적받았다. 많이 출전하면서 이를 채우고 돌아오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대구에서의 초반은 역시 어려웠다. 다행히 10경기를 기점으로 차차 여유가 생겼고, 운영능력도 보완됐다.

-실력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나.

김=정말 득기를 품고 했다. 불을 예쁘게 차겠다는 생각 없이 제대로 들어받자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변화가 생겼다.



FC바르셀로나 2군 백승호(왼쪽 끝)가 21일(한국시간) 벌어진 레반테 2군과의 스페인 세군다B(3부리그) 경기에서 한국선수 최초로 성인무대를 밟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 | FC바르셀로나 홈페이지

바르셀로나B팀 백승호 드디어 성인무대 데뷔

레반테B팀전 3분 출전...이승우도 데뷔 임박

백승호(19)가 팀 동료이자 후배인 이승우(18)에 앞서 성인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B팀(2군) 소속의 백승호는 21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미니 에스타디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스페인 세군다B(3부리그) 레반테 B팀전에서 후반 44분 교체로 투입돼 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FC바르셀로나 B팀은 성인 2군팀으로 백승호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명문인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성인무대를 밟았다.

등번호 14번을 달고 다니 로메라 대신 그라운드를 밟은 백승호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출전시간이 워낙 짧아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공격 포인트도 없었다. FC바르셀로나 홈페이지는 "백승호와 보르자 로페스 등 2명이 성인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두 선수는 데뷔전에서 팀의 6연승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 FC바르셀로나 B팀은 2-0으로 이겨 6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1월 초 국제축구연맹(FIFA) 출전금지 징계에서 벗어난 백승호는 19세 이하(U-19)팀인 후베닐A에 몸담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11일 FC바르셀로나 B팀이 스페인 5부리그 그라노예르스와 치른 비공개 친선경기에 출전해 골까지 터트리며 가능성을 입증한 뒤 결국 레반테 B팀과의 대결을 통해 전격적인 성인 데뷔전을 가졌다. 백승호와 함께 FC바르셀로나 B팀의 호출을 받은 이승우는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곧 백승호의 뒤를 이어 데뷔 기쁨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는 "백승호는 이승우와 함께 성인팀을 밟았고 마침내 첫 경기를 치렀다. 이승우는 운이 없었지만, 백승호는 헤라르드 로페스 감독의 부름을 받아 경기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FC바르셀로나 B팀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백승호와 이승우가 성인무대 첫 팀에서 모두 편안하게 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손흥민 "26일 홈경기...유로파16강 진출 자신"

통신헌 수첩

토트넘 손흥민(24)은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원정 1차전에서 팀이 무승부에 그쳤지만 충분히 16강에 오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피렌체 아르테미오 프란키 스타디움에선 피오렌티나-토트넘의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이 벌어졌다. 왼쪽 날개로 선발출전해 68분을 소화한 손흥민은 미드필드의 텔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원톱 나세르 샤텔리를 뒷받침했다. 토트넘은 전반 37분 페네타리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13분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1-1로 비겼다. 저지에서 골을 뽑은 데다 26일 안방에서 2차전을 치르는

만큼 토트넘이 유리한 편이다. 다음은 경기 후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소감은?

"우선 어려운 경기였다. 피오렌티나 선수들이 굉장히 멋진 축구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정골을 넣었고, 무승부를 기록해서 2차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홈에서 2차전을 앞두고 원정골이 심리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지?

"유로파리그나 챔피언스리그에선 원정골 규정이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치고 한 골도 못 넣었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어떤 팀이었나?

"상당히 좋은 팀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2차전을 위해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분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홈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기분 좋게 16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자신 있다."

-연달아 FA컵,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3번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든 대회에 경기가 잡혀있는데, 어느 한 대회에 집중하기보다는 감독님도, 선수들도 모두 매 경기 집중하고 있다. 로테이션도 잘하고 있고,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남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회를 뛰든 선수들이 모두 이기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인다. 욕심도, 승부욕도 있기 때문에 어느 대회에 집중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벌어진 피오렌티나와의 2015~2016시즌 유로파리그 32강 원정 1차전 도중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손흥민이 68분을 소화한 가운데 토트넘은 1-1로 비겼다. 피렌체(이탈리아) | AP뉴시스

하기보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피렌체(이탈리아) | 허무현 통신원